

KIA 챔피언스필드 '별'들의 잔치 시작된다



프로야구 별들의 플레이가 챔피언스 필드를 수놓는다. 2014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17·1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펼쳐진다. 17일 프로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퓨처스 올스타들이 잔치를 벌이고, 18일에는 '별들의 별'이 그라운드에 총출동한다.

오늘부터 이틀간 올스타전

오후 4시20분 팬 사인회

TV·태블릿 PC 등 경품 푸짐

★ 체크 포인트

- ✔ 이대형 등 6명 번트왕은 누구
- ✔ 박병호 '홈런왕' 자존심 지킬까
- ✔ 박찬호, 지각 은퇴식
- ✔ 난치병 아이들과 '니눔'

◇퓨처스 올스타전, 번트왕·홈런레이스 예선(17일)

올스타전 전야는 예비스타들이 장식한다. KIA·상무·삼성·NC·롯데·한화 6개 팀으로 구성된 남부리그는 상무 박치양 감독이 사령탑을 맡는다. 경찰·SK·LG·두산·화성·kt 등 6개 팀이 속한 북부리그는 경찰야구단 유승안 감독이 지휘한다. KIA에서는 고정창(투수), 황수현·최원준(이상 내야수), 박찬(외야수)이 참가한다.

경기가 끝난 뒤 1군 올스타 선수들의 팬사인회와 번트왕 경기가 진행된다. 팬사인회는 사전 인터넷 예매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기회가 주어진다.

정교한 번트 실력을 겨루는 번트왕에는 KIA 이대형, 삼성 박해민, 롯데 손아섭, SK 김강민, 넥센 서건창, LG 최경철 등 6명이 출전한다. 올스타전의 백미 '홈런레이스'예선도 진행된다. KIA 나지완, 두산 김현수·간투, 롯데 히메네스, SK이재원, 넥센 박병호·강정호, NC 나성범이 시원한 홈런쇼를 펼친다.

퓨처스 올스타전의 입장요금은 무료다. 예매시 장당 2000원의 예치금이 결제되며 현장에서 티켓으로 교환한 관람객에 한해서 환불된다. 선착순 1000명에게 9개 구단 기념구가 주어지며, 추첨을 통해 49인치UHD 3D TV 1대와 태블릿PC 등 경품도 제공된다.

◇올스타전과 박찬호 은퇴식(18일)

올스타전은 오후 4시20분 팬사인회로 막이 오른다. 팬사인회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은 당일 오전 KBO 접수처에서 선착순으로 배포된다.

팬사인회에 이어서 타켓에 공을 던져 승부를 겨루는 퍼펙트 피처가 진행된다. KIA 에이스 양현종과 함께 롯데 장원준, 삼성 안지민, SK 박정배, 한화 이태양, LG 이동현이 '제구력'을 놓고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시원한 한방 싸움도 펼쳐진다. 홈런레이스 예선전 1, 2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리그 최고의 거포 자리를 놓고 결승전을 치른다.

한국야구의 큰별 박찬호의 은퇴행사도 마련됐다. 올스타전 본경기에 앞서 박찬호에게 KBO가 준비한 공로패, 한화·프로야구 선수협

회에서 마련한 감사패가 전달된다. IMF시절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는 팬들에게 마지막 감동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박찬호는 이날 경기의 시구도 맡는다.

5회가 끝난 뒤에는 '한국 메이저리거 소원 이벤트'가 진행된다. 난치병을 앓고있는 아이들을 돕는 한국 메이저리거재단과 함께 마련한, 야구선수가 되고싶은 아이의 꿈을 이뤄 줄 특별한 이벤트다.

경기 종료 후에는 번트왕, 퍼펙트피처, 경기중 삼성, 홈런 등으로 적립된 기금 전달식과 우승팀 및 미스터올스타, 우수 투수·타자, 승리 감독상 등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된다.

볼꽃놀이와 광주 밤하늘을 빛으로 물들이면서 이틀간의 축제는 마무리 된다.

한편 입장권 예매는 오픈마켓 G마켓 티켓(http://ticket.gmarket.co.kr)과 ARS(1644-5703), 스마트폰 G마켓 어플을 통해 할 수 있다. 티켓링크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가능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터 '굿바이 올스타전'

2타수 2안타 활약...MLB 시즌 후 은퇴

2014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을 중계한 폭스스포츠 중계진은 "데릭 지터(40)의 플레이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보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대로였다. 올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하는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유격수 지터는 16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자신의 마지막 올스타전에서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아메리칸리그 올스타 1번타자·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지터는 1회초 수비 때부터 큰 함성을 끌어냈다. 지난해까지 양키스에서 키스톤 콤비를 이뤘던 로빈슨 카노(시에라 매리너스)와 주먹을 마주치며 유격수 위치에 선 그는 앤드루 맥카진(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안타성 빠른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견제내고 정확한 송구를 했다. 내야안타가 됐지만, 팬들은 호수비를 펼친 지터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아메리칸리그의 1회말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 타깃필드가 들썩었다. 지터가 모자를 벗고 관중에게 인사를 전했다. 상대팀의 배려도 깊었다. 내셔널리그 선발 에딧 웨인라이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글러브를 그라운드에 내려놓은 채 맨손으로 마운드 밑에서 있었다. 지터가 팬들과 충분한 인사를 나눌 시간을 주기 위한 배려였다.

승부에서는 양보가 없었다. 지터는 2구째 시속 145km 컷 패스트볼을 받아쳐 우익 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쳐냈다. 지터는 2014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첫 득점도 올렸다. 3회에도알프레도 사이먼(신시내티 레즈)과 폴 카운트 접전을 펼치다 7구째 시속 151km 직구를 밀어쳐 우전안타를 만들었다. 2014 올스타전 지터의 마지막 타격이었다. 지터는 4회초 수비 때 알렉세이 라미레스(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교체됐다. 그는 더그아웃 앞에서 모자를 벗고 손을 흔들며 팬과 작별 인사를 했다. 타깃필드에 모인 관중 대부분이 일어나 지터와 인사를 나눴다. 2014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의 하이라이트였다. /연합뉴스



"4강을 향해" 전반기가 끝난 뒤 이틀 간의 휴식을 취했던 KIA 선수들이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올해는 가을야구 한다"

후반기 스타트...필 등 1군 합류 훈련 재개

'호랑이 군단'이 후반기를 위해 발돋움 가다 듣는다.

전반기를 마치고 이틀간 휴식의 시간을 보낸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16일 챔피언스 필드에 소집됐다. 손동 골절로 재활을 하던 외국인 선수 필도 1군 선수단에 합류해 타격 훈련 등을 소화했다.

간단한 훈련으로 위밍업을 한 선수들은 올스타전이 열리는 17·18일에는 합평 챔피언스 필드 로 장소를 옮겨 훈련을 이어간다.

19일에는 실전 훈련을 진행한다. 청백전을 통해 경기감각을 조율하고 후반기를 위한 전력 점검을 끝낸다.

선동열 감독은 "후반기에는 김진우와 송은범이 역할을 해야 한다. 속을 많이 태웠는데 후반기에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필은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 연습경기를 뛰게 한 뒤 합류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고향 방문, 가족 여행 등으로 짧지만 달콤한

휴식을 보낸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다.

하지만 14일 발표된 2차 예비 엔트리 '후폭풍'도 있었다.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내야수 안치홍이 최종 엔트리가 아닌 2차 예비 엔트리에서 탈락하면서 KIA 덕아웃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안치홍과 희비가 엇갈린 나지완은 "평단이 발표되고 나서 (안치홍이한테) 파이팅 세 글자 문자가 왔다. 괜히 내가 죄인이 된 기분이다. 마음이 편치 않다"고 심경을 밝혔다.

선수단 내부에서는 "최종 엔트리도 아니고 2차 예비 엔트리에서 성적이 좋은 선수를 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외야에 같은 포지션을 놓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팀 입장에서는 격정이다. 중요한 시점에서 팀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어 격정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논란의 중심이 된 안치홍은 무릎 통증으로 주사 치료를 받느라 이날 훈련을 쉬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